



FTA국내대책위원회 · 기획재정부



한·미 FTA
경제고속도로가
열린다!



한·미FTA
경제고속도로가
열린다!



◆ FTA에 대한 다양한 정보,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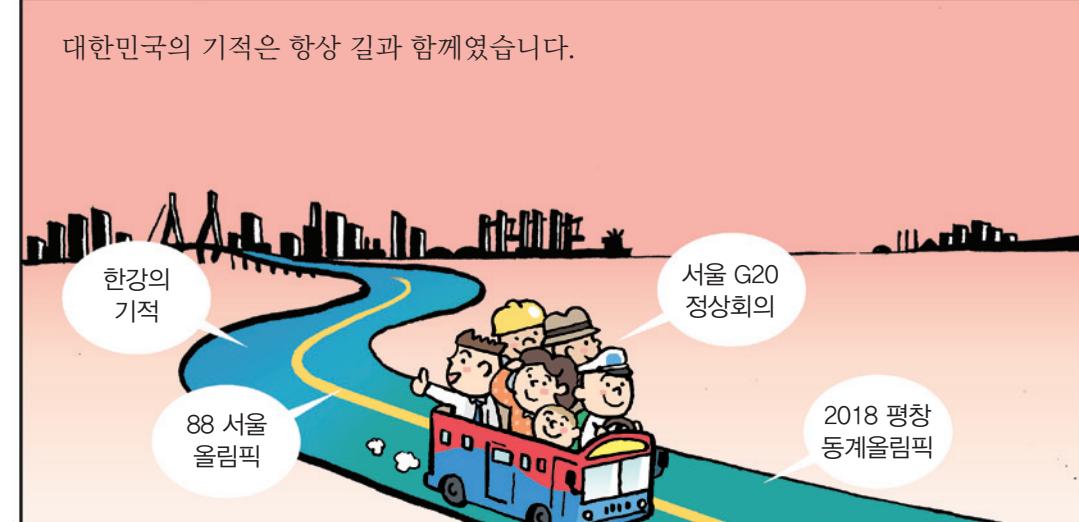
- 기획재정부 FTA 종합지원포털 www.ftahub.go.kr
- FTA 블로그 blog.naver.com/korusfta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 관세청 FTA 포털 fta.customs.go.kr
- 한국무역협회 FTA 포털 fta.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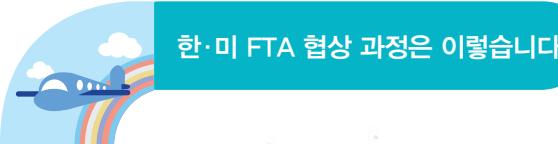
목차

- 04 프롤로그
- 06 • [한·미 FTA 협상 과정은 이렇습니다](#)
또 다른 시작
- 16 그라피툰_한눈으로 보는 경제효과
- 18 • [한·미 FTA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서민의 시대가 오고 있다!
- 24 일러스툰_한눈으로 보는 FTA 미래상
- 26 • [한·미 FTA 진실을 알려 드립니다](#)



안종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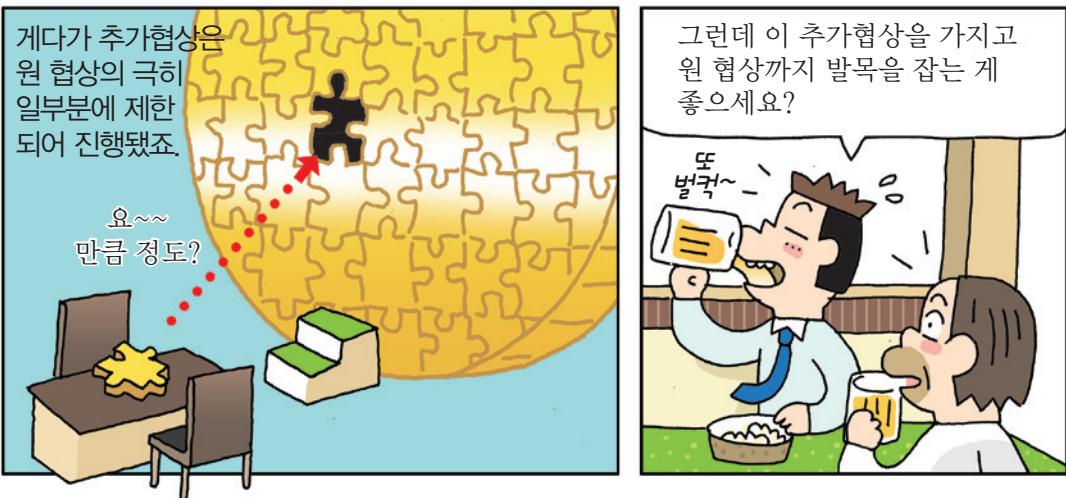
또 다른 시각



안종만







한·미 FTA 발효가 1년 늦어질 때마다 우리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15조 원을 허공에 날리는 겁니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을 선점할 수 있게 되니 우리 자동차회사도 반기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은 관세가 즉시 철폐돼 미국 수출이 크게 늘 것이니 중소기업에게도 '딱'이고요.



돼지고기의 경우 관세철폐기간을 2년 연장했으니



우리 양돈업계에 시간을 벌어 준 셈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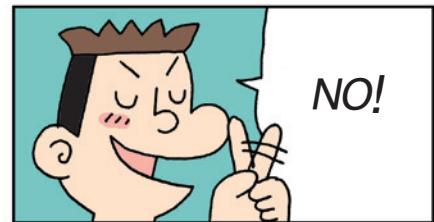
추가협상으로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 후 철폐하기로 했고요. 우리나라는 관세 8%를 발효일에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하다가 철폐하기로 했죠.

의약품 시판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시행시점을 3년 연기해서



제약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더 확보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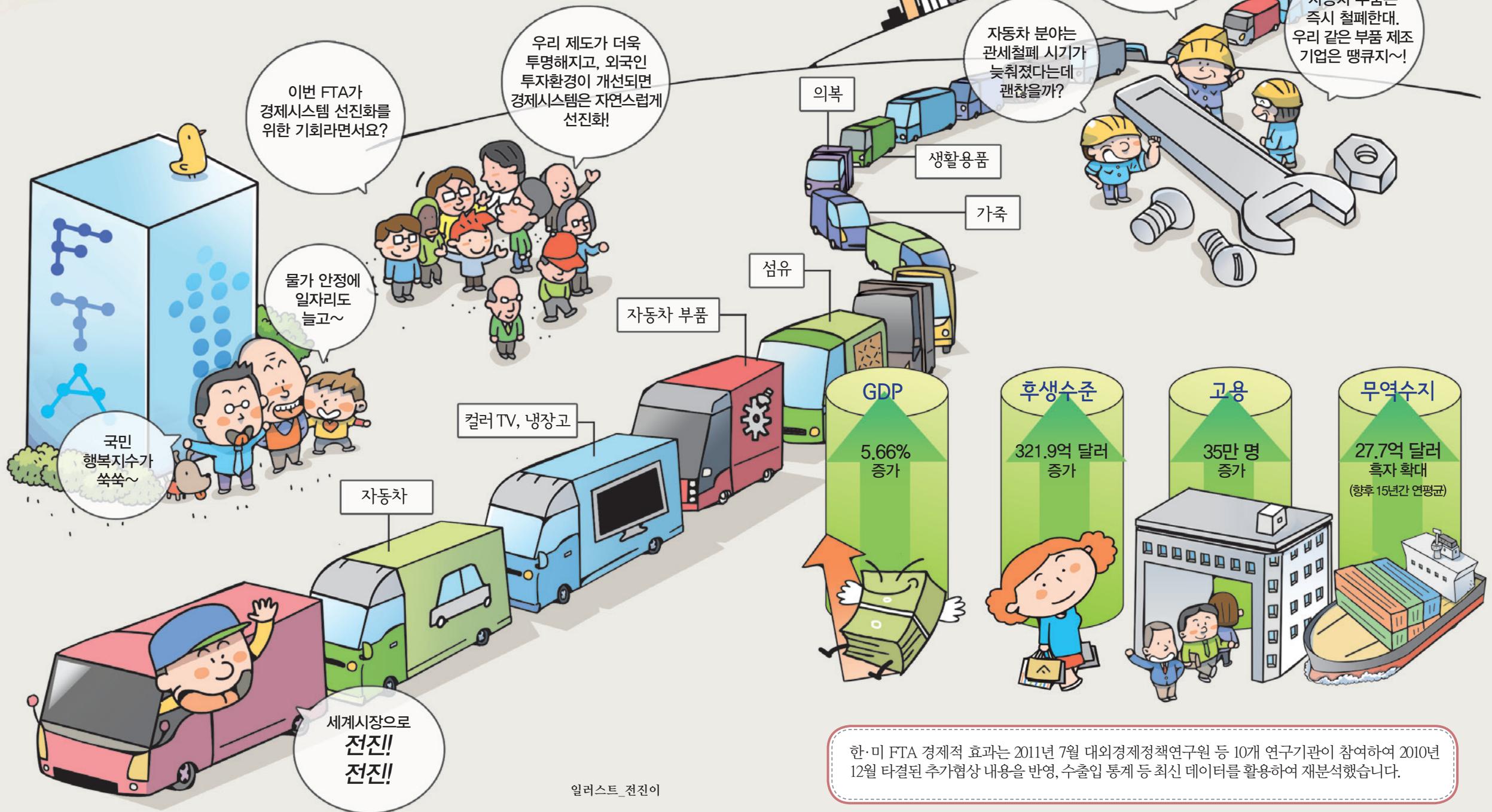






그래픽툰_한눈으로 보는 경제효과

시장이 확확~ 살림살이 쑥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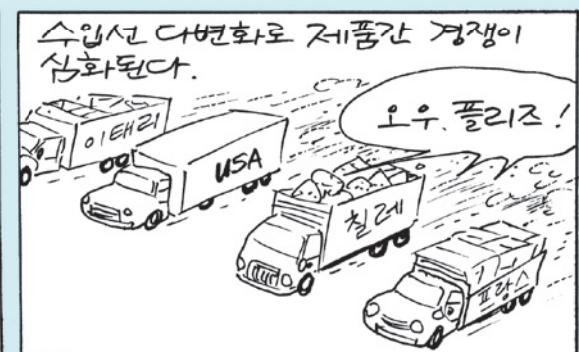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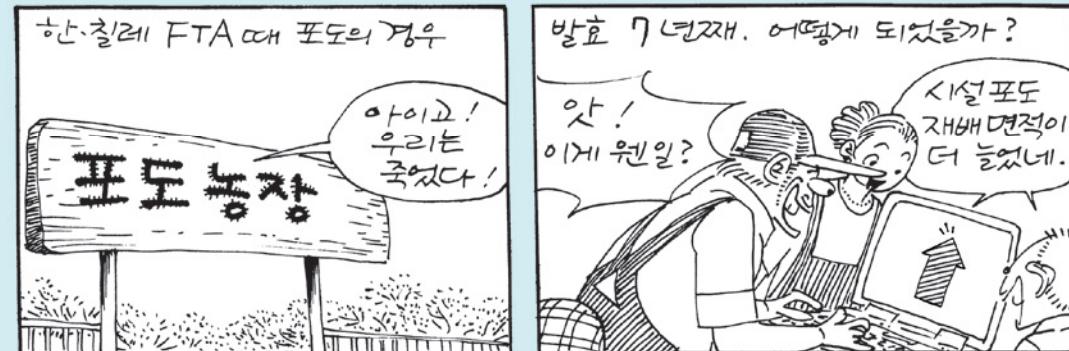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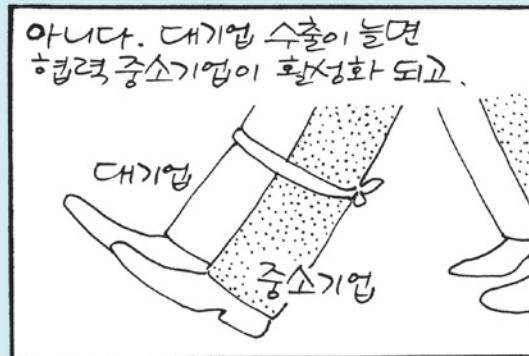
시대의 시대가 오고 있다!



강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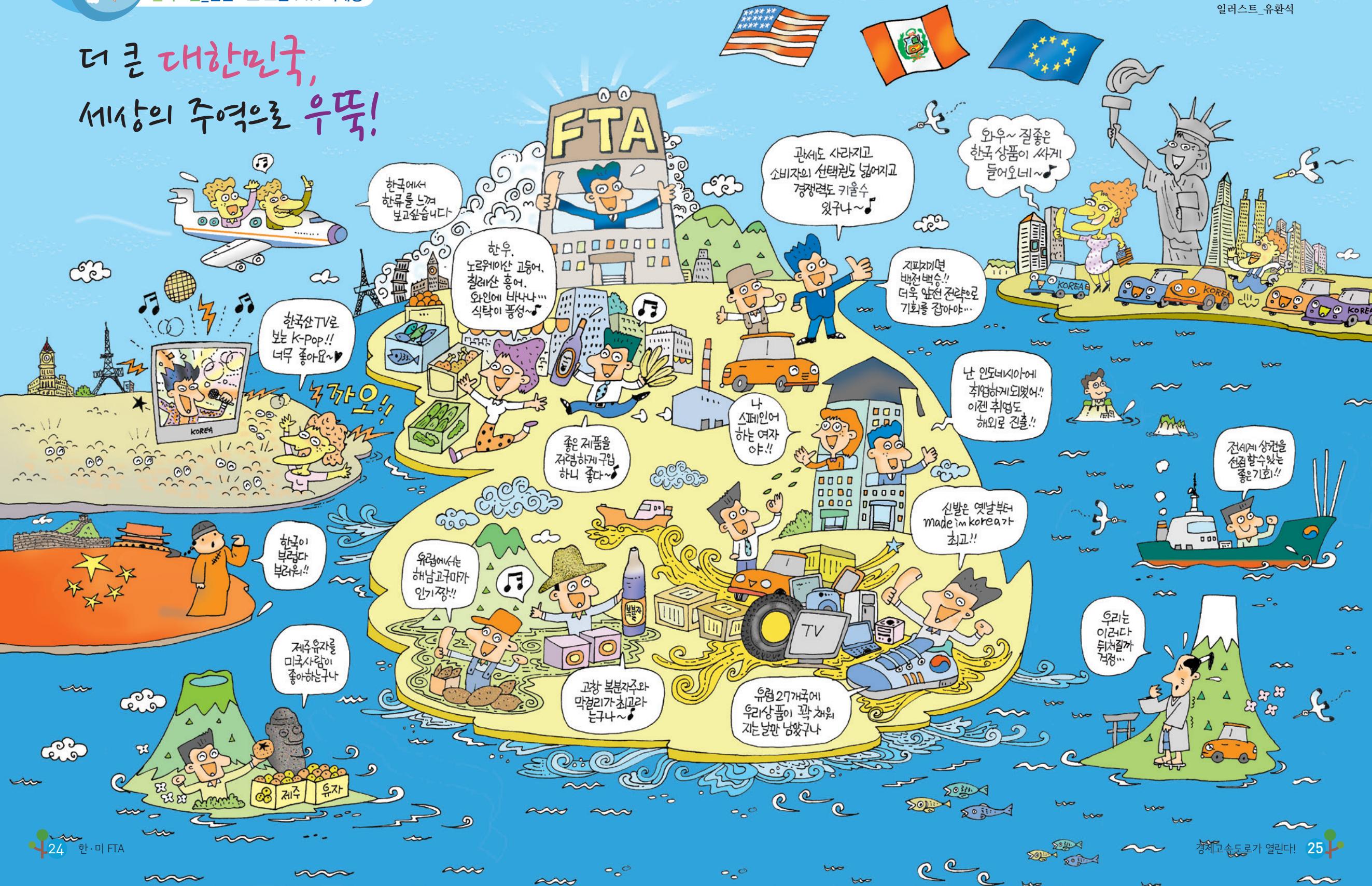








더 큰 대한민국, 세상의 주역으로 우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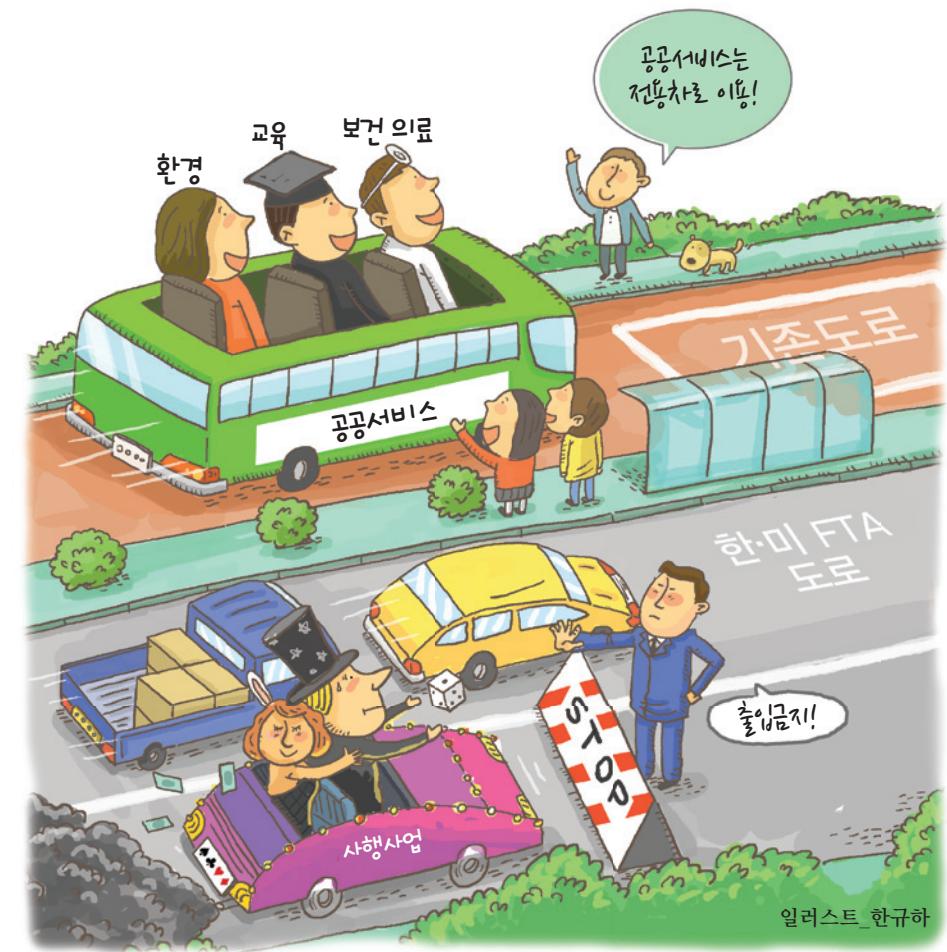
소위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조항 대부분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 ISD, 래칫, 네거티브 개방방식* 등 일부에서 주장하는 소위 '독소조항'은 대부분 '글로벌 스탠다드'로, 원협정에 이미 포함된 내용입니다.
-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 우리가 다른 나라에 진출하는데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 용어설명은 32p 참조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권한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보건의료,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권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일반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행산업(도박 등) 등 공중도덕을 해치는 각종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값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 신약의 약가는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의약품 시판 허가—특히 연계제도*가 약가 폭등을 야기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없는 우려입니다.
- 또한 추가협상을 통해 의약품 시판 허가—특히 연계제도 시행시기를 3년 후로 연기함으로써 제약업계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좀 더 길게 확보하였습니다.

* 의약품 시판 허가—특히 연계 제도 : 식약청이 국내 제약기업에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시 특허권자(미국 제약기업)에게 일정기간의 이의신청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외국자본에 대한 감독 및 규제시스템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우리 금융시장은 이미 충분히 개방되어 있으며, 외국자본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시스템 등 안전장치도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은행의 공적 기능은 여전히 유지하며, 국제투기자본의 국내은행 소유에 대해서도 규제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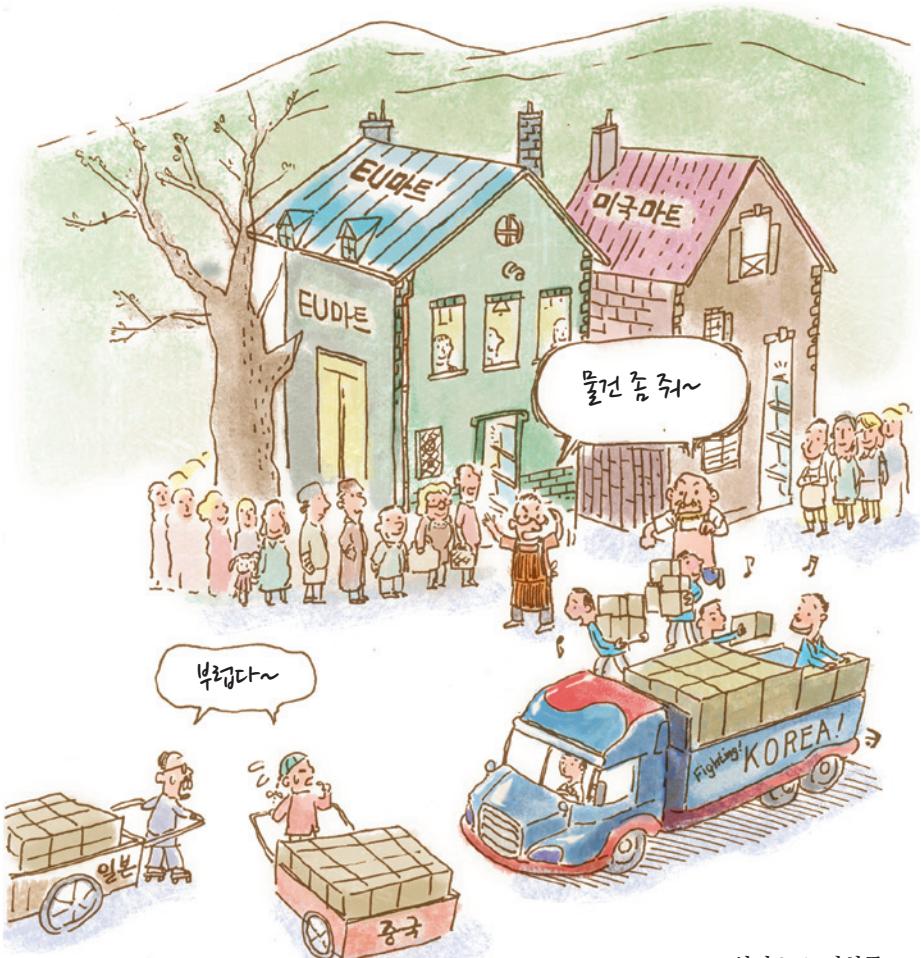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진정한 친서민·친복지 정책입니다

서민의 밤걸음이 가볍다!



- 일자리가 35만 개 창출되고, 소비자 혜택이 321.9억 달러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대(對)세계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27.7억 달러 흑자 확대가 기대됩니다.
- 관세철폐·수입선 다변화로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합니다.
- 농축수산 분야에는 21.1조 원의 보완대책을, 영세중소기업에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자생력을 강화합니다.

주요 경쟁국들이 부러워합니다



일러스트_김성규



- 경쟁국들은 미국 및 EU 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는 미국·EU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서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투자를 유치한 정부가 투자협상 의무 위반,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 제소 또는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 전 세계 2,500여개 투자협정(BIT)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가 체결하여 이미 국회 동의를 거쳐 발효 중인 대부분 FTA와 85개 투자보장협정의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 우리 해외투자 규모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모보다 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자유화 역진방지장치(래칫_Ratchet)

- 현행 자유화 수준을 유지하거나 혹은 보다 더 자유화된 형태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허용되나, 한번 개방된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장치이다.
- 시장개방 및 투자자·무역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증대시켜 교역과 투자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미 FTA에서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나 투자 분야에만 한정되어 적용된다.

네거티브 방식(Negative List)

- 서비스시장 개방시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한·미 FTA가 이 방식을 채택했다.
- 반면 한·EU FTA는 개방하려는 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했으나 두 FTA의 개방 수준은 유사하다.



